

2022년도 5급 공채(행정고시 66회) 합격수기

이경주

1.서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반행정(지역)직렬에 최종합격한 이경주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합격생들과는 조금은 다른 이력을 지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반적인 합격수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와닿지 않는 분이라면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분이나, 공공인재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공공인재원

저는 단 한 번도 신림에 가지 않고 공공인재원의 지원만으로 공부했고, 합격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고시공부를 시작한 건 2019년 1월입니다. 그리고 공공인재원엔 2018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입실시험일이 고연전날과 겹쳐 절망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인재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째는 바로 경제적 지원입니다. 현실적으로 5과목에 대해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만 들어도 인강비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같이 듣는 사람을 구하더라도 500만원은 부담해야겠지요. 하지만 공공인재원에선 자신이 원하는 강의에 대해 개인 부담비를 적게는 개당 3만원까지 줄여줍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강의비를 6%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재원 덕에 학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장기간 이어진 공부에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시험 왕복 택시비 지원이나 PSAT자료지원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경제적 지원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둘 째, 공간지원입니다. 공공인재원은 개인학습공간과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학습공간은 무거운 수험 서적들을 넓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부분에서 웬만한 고급 독서실을 뛰어넘습니다. 개인 자리가 여닫이 문으로 되어있어 타인의 존재를 신경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5층엔 스터디룸이 세 개가 있어 필요할 때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탁트인 공간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올라가서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셋 째, 첨삭 및 상담지원입니다. 공공인재원에선 매년 합격생들이 배출되고, 그 합격생들은 인재원 소속 학생들을 지원하며 새로운 합격자가 매년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일환으로 2차 과목 답지를 직접 첨삭해주거나, 수험 방향이나 고민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직접 스터디에 참여하여 방향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답안 첨삭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신림 고시촌을 가는 이유 중 절반이 바로 첨삭입니다. 혼자 공부해선 자신이 쓰는 답지가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인재원은 고득점을 받은 합격생들이 직접 첨삭을 지도하면서 방향을 점검해주고, 직접 고시촌에 가지 않더라도 더 높은 퀄리티의 첨삭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2.스터디와 교수님 모의고사 참석

수험생활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중 하나가 바로 스터디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차 과목 스터디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터디의 이점은 바로 더 높은 퀄리티의 답지를 작성해나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실력이 좋았던 같은 인재원 소속 형들과 함께 답안을 작성해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시간 내에 답지를 작성하며 실전감각을 익히고, 답안지를 바꿔 읽어보며 각자 피드백을 주고 더 나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제 약점 과목이었던 행정법과 행정학이 직전 시험 대비 약 20점씩 향상되며 올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답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보고 고민한다면, 첨삭에선 얻을 수 없는 능동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를 병행해야했기에 형들처럼 매일 오전과 오후에 인재원 5층에서 진행된 스터디를 참여할 수 없었지만, 제가 가능한 시간 내에선 최대한 참여하면서 답안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답지를 많이 쓰면서 암기는 머리가 아닌 손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고시동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와 인재원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모의고사에 참여하고 강평을 들었던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답지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사가 아닌 교수님들의 관점을 확인하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재원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모의고사는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기에 더 높은 퀄리티의 강평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3.멘탈관리방법 ‘플랜 B’

저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도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과는 많이 다른 메시지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수험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그로 인해 시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행정고시는 참 리스크가 높은 시험입니다. 합격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공부한 과목들 중 플랜 B를 위해 써먹을 수 있는 것은 PSAT과 경제학 뿐입니다. 고시공부에 전념한 학생들은 당연히 일반 취업 준비생에 비해 학회나 동아리 활동도 부족하고, 자소서 작성을 위해 거의 필수인 인턴경험을 마련해놓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LEET를 쳐서 로스쿨을 가거나, 혹은 경제학을 더 깊게 공부해서 금융공기업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플랜B를 대비하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첫 2년 정도는 고시공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계획을 준비하기엔 진도를 따라 잡는 것만 해도 벅찰테니까요. 하지만 2년 정도가 지나면 1년 내내 고시공부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 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거나, 휴식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대부분 2차시험이 끝난 하반기엔 시험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1차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라면 상반기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자리를 잡기 시작해 뒤처지는 느낌이 들며 조금씩 압박을 받습니다.

플랜 B는 2년 정도가 지난 뒤, 고시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시기에 컴활/한국사/토익스피킹 등을 따놓아도 좋고, 가능하다면 인턴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7급 시험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7급 시험은 학기가 충분히 남아 임용유예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1년만 더 공부할 것이라는 각오가 있을 때 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에 1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공부한지 2년이 지났고, 1차 시험에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하고 휴학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공부에 집중도 안 될 것 같아서 곧바로 토익스피킹/컴활/한국사 자격증 공부를 했고, 겸사겸사 국정원 시험도 준비했었습니다. 이후엔 시간이 약 5개월정도 남아 7급 공채 공부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험에 합격하여 고시 공부를 위해 곧바로 임용유예를 신청해서 1년을 벌었습니다. 그 해 겨울엔 또 다른 플랜B를 위해 두 달간 동계 인턴을 하고 퇴근 후에 PSAT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PSAT은 긴장만 안 하면 붙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고, 인턴까지 해두면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차시험 당일엔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사정상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었고 12학점 이상 들었어야 했는데, 2차시험 준비까지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 하나 없이 시험을 더 여유롭게 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며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도 학교를 병행해야

했기에 쉽진 않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안 돼도 먹고 살 길은 이미 정해놔기에 심적인 부담감 없이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2차 시험 이후에도 최대한 많은 플랜B를 세우기 위해 LEET를 치고 금융공기업 등에 계속 원서를 쓰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당장 시간은 많고 로스쿨이든, 금융공기업이든, 혹은 7급 공무원이든 일단 다 합격을 해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5급 공채에 합격해서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플랜B를 조금씩 준비해둔 덕에 불안감 없이 행정고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긴장 없이 시험을 치며 제 역량을 온전하 다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4.기타 생활관리

저는 일주일 중 5일은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했고, 주말 중 하루는 저녁 9시까지만 공부한 뒤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절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설 때는 가볍게 술을 한 잔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와 아날 때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제 생활엔 적합했습니다. 그래야 평소에 온전히 집중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나가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험이 노력만으로 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붙을 순 없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붙을 수는 없습니다. 방대한 시험범위에서 자신이 아는 것이 나와야하고,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좋은 스터디나 첨삭지원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필요하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당일 컨디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좌절하는 순간이 왔거나,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해버린다면 의미가 없겠지만요. 모두 공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